

### III. 해외마케팅.투자정보 하이라이트

#### ■ 우크라이나, 건축붐 타고 세라믹타일 수요 증가

##### □ 2003년 세라믹타일시장 30% 성장

- 우크라이나 세라믹타일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세라믹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30%나 확대되었음. 2003년 우크라이나인 1인당 세라믹타일 판매량은 0.55㎡였음.
- 우크라이나 세라믹타일 시장규모는 2001년에 1억3천만불이었는데 2003년에는 1억8천5백만 내지 1억9천5백만불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세라믹타일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유는 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빌딩의 건축 및 리모델링붐이 일고 있기 때문임.
-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세라믹타일의 규격은 150x200mm, 200x250mm, 200x300mm 등이며, 현재 벽용(wall type)과 바닥용(floor type)이 비슷한 규모로 판매되고 있음. 2001년에만 헤도 벽용(wall type)의 판매가 60-65%를 차지했는데 점차 이의 판매량은 감소하고, 바닥용(floor type)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음.

< 세라믹타일 유형별 시장점유율 >

연도	벽용 (%)	바닥용 (%)
2001	60-65	35-40
2002	55-60	40-45
2003	50-50	45-50

(자료원: Business Magazine)

##### □ 중·고급품이상은 수입에 의존

- 우크라이나에도 4개의 세라믹타일 제조업체가 있으며 연간 생산량이 국내 총수요의 약 1/3인 7백만㎡에 달하나, 주로 저급품이며, 중·고급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03년 연간 수입액은 약 5천만불로서 2002년 3천8백만불 대비 32.5%의 증가치를 기록했으며, 금년 1-7월간 수입액(35,612천불)은 2002년 연간 수입액에 육박하고 있음.
- 아래의 표 “우크라이나의 세라믹타일 수입동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주된 세라믹타일 수입대상국은 스페인, 폴란드, 벨로루시 등임. 이 외에도 이태리는 고급품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산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 우크라이나 세라믹타일시장은 저가, 중가 및 고가품시장으로 3분 되어 있음.
- 저가품은 개당 가격이 5.5달러 미만으로 우크라이나산 제품이 여기에 속함.
- 중가품은 가격이 5.5달러이상 10달러 미만으로 폴란드, 터키, 중국, 러시아 및 벨로루시산 제품이 여기에 속함.
- 고가품은 가격이 10달러이상으로 스페인 및 이태리산 제품이 여기에 해당함.

**< 우크라이나의 세라믹타일 수입동향 >**

(단위: 천\$)

2002 년		2003 년		2004 (1-7 월)	
국명	수입액	국명	수입액	국명	수입액
스페인	9,934	스페인	10,273	스페인	7,108
폴란드	4,477	폴란드	8,556	폴란드	6,889
벨로루시	4,693	벨로루시	6,720	벨로루시	5,051
기타	19,017	기타	24,958	기타	16,564
합계	38,121	합계	50,507	합계	35,612

(자료원: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 한국산 진출 노력 필요**

- 우크라이나 세라믹타일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달하는 유망한 분야이나 우리제품의 수출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국내업체의 진출 노력이 필요함.
- 현지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2002년부터 중가품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바(약 10% 증가) 우리나라는 중가품 이상의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이태리, 스페인산보다 가격이 다소 낮으면서 품질은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을 제시하면 진출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조사, 현지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임.
-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현지의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나 세라믹타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위생용 설비를 취급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함.
- 또한 현지에서 개최되는 건축 전문전에 참가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시장 진출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전시회는 매년 키예프에서 춘계(3월) 및 추계(9월)로 2회 개최되는 “Building and Architecture”임.

(문의처 : 키예프무역관 신남식 [kotraiev@gt.com.ua](mailto:kotraiev@gt.com.ua))